

지역 소식통

부안군, 세계잼베리 손님 맞이 준비사항 보고회

부안군은 19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이정석 부군수 주재로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잼베리 손님맞이 준비사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3 세계잼베리가 1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잼베리에 참여하는 국내·외 스카우트와 세계잼베리 기간 부안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부안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부서별 손님맞이 준비사항 계획 위주로 보고회를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잼베리 기간 부안 문화제 야행·상설 시장 야시장·문화공연 집중개최를 통한 부안 상권 활성화 계획, 관내 숙박시설 현황 구축, 교통표지판 및 도로 재포장을 통한 도시미관 재정비, 대표 관광명소 안내판 정비 등으로 세계잼베리 준비 뿐만 아니라 잼베리 기간 부안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사업도 보고되었다.

신규 아이디어로는 영의과정 활동장 내 참봉부안 한돈 시식회를 통한 부안군 축산물 홍보 등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원자력안전협

민간위원 총사퇴 결정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가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민간위원 총사퇴를 결정했다.

이날 조성기 위원장은 한빛원자력발전소 4호기가 군민들과 소통없이 재가동이 됨에 따라 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의 사퇴 찬성으로, 민간 위원들은 전원 사퇴하기로 의견을 가결했다.

최근 한빛 4호기가 재가동되었고 고창군민들은 걱정과 우려 속에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빛원전은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과 안전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일방적인 4호기 재가동 승인으로 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은 총사퇴를 결의했다.

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 민간위원 사퇴 수리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개소 선정

### 부안군, 해수부 공모 선정 총사업비 200억원 확보... 어촌 생활여건 개선·일자리 창출

부안군이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에 송포항~격포항 배후마을 간 변산반도 북서측 어촌지역, 격포항 배후마을~수락마을 간 변산반도 서남측 어촌지역 2개소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140억, 도비 18억, 군비 42억)의 예산을 확보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생활권 내 생활서비스 연계 및 정주환경 개선으로 어촌거주를 희망하는 가구 유입과 지역주민 유출 최소화를 위해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 주체를 발굴 및 연계 방안을

미련함과 동시에 어촌·어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경제활동 주체(로컬·소셜벤처, 로컬크리에이터 등) 유입·육성을 통한 어촌형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링크 역할을 담당할 주체를 발굴·육성하여 어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은 부안군과 '어촌앵커조직'이 공동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며 공동 사업자로 선정된 앵커조직은 사업거버넌스 운영, 링크조직 발굴 육성, 사회혁신 프로그램 운영, 어촌스테이션 기획 운영, 공간환경 마스터

플랜 지원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을 마련하고 인적 자원을 발굴·연계하는 핵심 지원 조직으로 본 공모 평가 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되는 조직이다.

이러한 어촌앵커조직의 중요성을 사전에 인지한 부안군은 공모 선정을 위해 지난해 9월 전국을 대상으로 본 사업 신청을 위한 앵커조직을 공모한 후 11월 외부평가위원회의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역량 있는 앵커 조직을 사전에 선정,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먹거리산업 선순환 체계 열다'

### 부안군, 과학영농시설 준공... 지역 농업발전·혁신 출발점 기대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은 오랜기간 농업인 숙원사업인 과학영농시설을 완공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준공식은 19일 권익현 군수, 이원택 국회의원, 김광수 군의회 의장, 김정기갑습기 도의원, 군의원, 지역조합장, 농업인단체 회장 등 각계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미래형 부안농업발전 소득개발과 과학영농 수행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준공을 축하하고 무궁한 농업발전을 기원했다.

부안군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은 총사업비 108억원을 투입 지하층과 지상3층 연면적 3,415㎡규모로 완공했다. 기존 농업기술센터는 70~80년대 건

축된 노후건물로 시설이 낡고, 건물이 여러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농업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연중 끊이지 않는 각종 교육 및 행사를 추진하는데 교육장, 가공실습장 등 주차 공간부족으로 도로변 주차 교통사고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어 신속의 필요성을 느꼈다.

준공된 과학영농시설은 사무공간과, 연구 실험분석실, 농산물 가공실습실 및 교육장 정보화교육장, 농업인 단체실 및 상담실 등 행정, 문화, 복지,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과학영농시설로 내일이 증가하는 ICT 농업의 융복합 산업육성과 지역 특화작목 육성 촉진하고 농업의 중추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시민소통실 신설로 소통 행정 '강화'

### 시민 중심 민원 행정에 방점

정읍시가 문턱을 낮추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소통행정서비스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정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정읍시청 본관 1층에 '시민소통실'을 신설했다. '시민소통실'은 시민의 참여를 통한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이학수 시장이 내건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지역의 문제를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표 정책 창구이자 시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소통과 신뢰의 창구로 대의협력과 자치분권, 공보·홍보업무를 비롯해 지역민과 접점이 많은 업무를 한곳에 모았다.

특히 시민소통실 내 설치된 '시민소통방'은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 역할까지 수행한다.

또한 도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집행부 담당 부서 직원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시민과 시정, 의견을 바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관련해 지난 18일 영영선 도의원이 시민소통방에서 수성동 도시가스 공급 여부에 대한 민원 업무와 정명동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업무 2건을 처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가져

정읍시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새해 역점사업과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한 해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신속하게 정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시정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이학수 시장과 김영우 부

시장, 각 소관 국·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학수 시장은 "예산 절감을 위해 필요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부서장이 직접 행정절차를 조기에 완료토록 독려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담당자는 사업의 관행적 추진을 지양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설 명절 방역 대책 추진

정읍시가 설 명절 코로나19 감염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특별 방역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진자 발생 대응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비상 근무 체계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에 대한 상담과 진료 기관, 약국 등을 안내하는 의료상담센터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운영하고, 중국·홍콩·미카오 출발 해외입국자를 실시간으로 감시·관리하는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설 연휴에는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면회객은 시설 방문 전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예방 접종을 마쳐야 외출이 된다.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감염차단과 확산 예방을 위해 선제 검사용 신속진단키트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귀성객과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의료공백이 없도록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원스톱 진료 기관을 사전에 안내하고 홍보하기로 했다.

특히, 시와 보건소 119구급대, 의료기관 간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가동해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효(孝) 실천 지방세 대납' 시책 추진

고창군이 고향을 방문한 자녀들이 연로한 부모님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대납해주는 '효 실천 지방세 납부해 드리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에서는 설 명절 전에 자동이체 신청서와 안내문(안내부)을 제작해 65세 이상 지방세 납세자의 가정에 개별 전달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은 지방세 납부 편의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받아서 직접 납부하고 있다. 또한 장기출타와 고지서 분실로 인해 3%의 가산금을 납부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동이체 제도가 정착된다면 거동이 불편한 부모가 공과금 납부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외부자금의 유입 효과와 함께 지방세 체납 방지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이 공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대상 지방세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으로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